



성창이엔씨(주)는 지난 10월 28일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로부터 970만달러 규모의 공동보증 지원부 이행성보증서를 최초로 발급받았다. (좌측부터) 손영환 정책금융지원센터장, 서동욱 수출입은행 전남동부본부장, 김준우 성창이엔씨 사장, 선동철 산업은행 여수지점장, 민경국 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박정형 서울보증보험 여수지점 부지점장, 구민재 해외건설협회 부장

성창이엔씨, 투르크메니스탄 사업에 970만 달러 공동보증

성창이엔씨(주)[대표 김기영]가 지난 10월 28일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로부터 970만 달러 규모의 공동보증 지원부 이행성보증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첫 수혜를 입게 됐다.

‘공동보증’은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에 의거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관련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최초로 발급된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회사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성창이엔씨(주)는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 결과 양호 등급인 B+를 받았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이 투르크메니스탄 사업에 대해 각각 25%씩 동일한 비율로 보증을 제공해 산업은행 여수지점에서 이행성 보증서가 발급됐다.

최근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은 해외 수주 물량 감소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지원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의 이번 공동보증 지원부 이행성보증서 발급은 사업성을 기반으로 협약기관 간 협력 아래 리스크를 분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 첫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은행들은 개별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도를 보고 판단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센터 관계자는 “기관별 심사방식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 기관이 합심하여 공동보증 최초 지원의 결실을 맺었다”면서 “해외 사업을 수주했지만 금융지원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수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창이엔씨 김준우 사장은 “그동안 플랜트 모듈제작 등의 기술력과 활발한 해외진출 경험을 인정받아 제1호 공동보증업체로 선정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설비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동보증 최초 지원 프로젝트 구조도

